

# 녹색기후기금(GCF) 두 번째 한국인 국장(Director) 부임

- 녹색기후기금 자산·부채 관리 분야에 한국인 국장 진출, 5월 19일부터 본격 근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서는 2025년 5월 19일부터 고준흠 재무국장(Director, Department of Corporate Treasury)이 업무를 시작한다. 고준흠 국장(영문명: Sean Ko, 고션)은 호주뉴질랜드은행(ANZ), 바클레이즈(Barclays) 한국 대표 등 여러 금융기관에 27년 간 근무한 금융 전문가이다. 녹색기후기금 재무국장은 외환, 금리, 채권 발행, 유동성 관리 등 GCF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2024년 10월 김현정 인사·조직문화국장 이후 두 번째 한국인 국장 부임이다.

녹색기후기금은 2023년에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 사무총장이 부임한 이후, 다양한 방식의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준흠 국장의 금융 관련 오랜 경험이 녹색기후기금 재무국장 임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5~'27년 녹색기후기금 이사진, '25~'26년 적응기금 이사진에 진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노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왔다. 또한,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신임 사무총장, 김현정 녹색기후기금 인사·조직문화국장 등 기후 분야 국제기구에서 한국인 고위직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한국이 앞으로 기후 대응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국제기구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기후기금·국제금융기구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도익 (044-215-8750)
		담당자	사무관 이수호 (suholee90@korea.kr)
			연구원 김보영 (bykim117@korea.kr)
			전문관 최서연 (seoyeonchoi16@korea.kr)

## 참고

## 고준흠 재무국장 약력

☐ 성 명 : 고준흠(영문명 고선, Sean Ko)

☐ 직 책 : Director,

Department of Corporate Treasury

(재무국장)



☐ 국 적 : 대한민국

☐ 학 력

○ 미국 로체스터대학 응용수학 학사('93년)

○ 미국 로체스터대학 수학 석사('95년)

☐ 주요경력

○ 호주뉴질랜드은행 (ANZ,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금융시장본부 대표('16~'23년)

○ Barclays 한국 대표('14~'16년)

○ JP Morgan 기관 영업 총괄 본부장('04~'09년)

☐ 기타 사항

○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를 지원하는  
Teach for Korea 이사장 역임('20~'23년)